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of
Christians and Atheists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이희진 (Hee-Jin Lee)**

이원준 (Won-June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rough empirical research how the direct effect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to practice extramarital sex of married men and wome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s controlled by their religious backgroun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found that men are less critical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more receptive to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re willing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than women. It has been proven that Christians are more critical of extramarital relations than atheists according to religious background. In the case of Christians, their perception of Internet pornography does not directly affect their intention to practice extramarital sex. However, depending on how they perceive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can indirectly affect their intentions to practice extramarital sex. Considering the strong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raising a critical awareness of internet pornography for both atheists and Christians will be an important practice task to prevent and cope with extramarital sexual behavior.

Key words: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extramarital sex,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Christians, atheists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7일 최종 수정, 9월 7일 게재 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hjlee@handong.edu

*** 창신대학교(Cha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교수, wjlee@cs.ac.kr

I. 서론

혼인은 두 배우자가 스스로 남편과 아내로 살겠다는 약속이며, 부부가 일생동안 계속되는 행위 속에서 헌신(commitment)하는 행위이다(Finnis, 2011: 353 ; 오민용, 2018: 106).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도입한 사회에서 혼외성행위는 혼인 가치를 훼손하는 사회적 일탈 행위이다. 배우자 이외의 어떤 대상과도 성관계가 금지되는 ‘성적 독점적 관계’(sexual exclusivity)는 부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성 윤리이다. 혼외성관계(extra-marital sex)는 간통 혹은 간음(adultery)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간음은 혼인 약속인 정결을 깨는 것이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약의 표징인 혼인 유대를 손상시켜 혼인 제도를 해침으로써, 인류의 이익(benefit)을 위태롭게 한다”(이동호, 2008: 313 ; 권혁남, 2015: 234). 우리나라는 간통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를 폐지한 다른 국가들(예: 프랑스 1791년, 덴마크 1930년, 일본 1947년, 독일 1969년)에 비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존속시켰던 나라이다(박찬걸, 2010: 47). 간통죄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여론이 크게 대립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고(2015.2)하면서, 7년 전에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권혁남, 2015: 223). 간통죄 폐지가 혼외성행위를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간통죄 폐지의 주요 논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의 침해한다는 것이었다(권혁남, 2015).

간통죄의 폐지는 간통 행위자들에 대한 형법상의 구속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부부관계를 훼손하고 결혼 안정을 해치는 혼외성행위를 사회가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외성행위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의 핵심 논지이었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독점관계’라는 부부의 성윤리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은 ‘갈등을 야기하는 이슈’(conflict-provoking issue)임에 틀림없다. 피니스(Finnis, 2011)는 개인의 성적 선택과 활동은 ‘탈부부 관계화’(de-maritalizing)가 되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하였다(Finnis, 2011: 353). 이 주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위협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다. 성서 및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혼외 성(sex)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장형·안수강, 2014: 227 ; 권혁남, 2015: 224). 성적 자기결정권의 논리는 “결혼 및 성관계에 관한 성서적 관점과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면적으로 대비”된다(이장형·안수강, 2014 ; 권혁남, 2015: 234 재인용).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혼외관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기혼자의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제7계명(간음하지 말라)을 범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다.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이다(Walsh & Middleton, 1984). 종교적 신념은 사

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차원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Wolters, 1992 ; 김성수·장성수, 2010: 34 ; 이희진·이원준, 2019 : 196).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기독교인들은 무교인들 보다 혼외성에 대해 실제로 더 엄격하고 비판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를 시도하게 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성(性)에 대한 인식과 성 규범에 영향을 주는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ongoing process)이다(Gagnon, 1998 ; Longmore, 1998). 의미 있는 타자들(가족, 친구, 또래 등)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성적 사회화의 에이전트”가 되고 있다(Luster & Small, 1994 ; Harries et al., 1997 ; Chapin, 2000 ; L’Engle, Brown, & Kenneavy, 2006 ; 이희진, 2021a: 172). 선행연구는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허용성 및 성개방성 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조주영·김영희, 2004 ; 김유정, 2010 ; 남미애·홍보성, 2012 ; 조은숙, 2013 ; L’Engle & Jackson, 2008). 혼외정사, 매매춘, 다수의 성적 파트너와의 섹스, 성폭력 등 ‘위험 성행동들’(risky sexual behaviors)을 주요 콘텐츠로 다루는 인터넷 음란물은 혼외성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간주할 수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 확장성이 음란물의 전파의 획기적 수단”이 되면서(배정원, 2015: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접근이 용이”하다(Zillmann & Bryant, 1988). “음란물의 주요 콘텐츠인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인 위험 성행위들에 노출되는 대상은 특정한 성별, 연령대, 혹은 결혼상태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남미애·홍보성, 2012 ; 이희진, 2021a: 172). 기혼 남성은 물론 기혼 여성도 인터넷 음란물을 활발히 이용하는 소비 주체가 되고 있다(김인수, 2014 ; 배정원, 2015 ; 이희진, 2021a: 173). 선행연구는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들의 인식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이희진, 2021a).

성(性)에 대한 인식은 성에 대한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지만(이영화·이영숙, 2007 ; 이영숙·이영화, 2008 ; 함인희, 2012 ; Treas & Giesen, 2000), 혼외성행위(extramarital sex)와 같이 사회적 위험부담이 매우 큰 성적 일탈 행위의 경우 ‘행위’가 ‘인식’을 반영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혼외성행위자가 여전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인 현실에서, 설사 혼외성행위에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혼외성행위까지 일반화하여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이 혼외관계에 대한 이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혼외성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연구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혼외관계인식 및 행위에 종교적 가르침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실증연구(empirical study)가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기독교인들은 “간음하지 말라”가 제7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가 내면화된 기독교인들은 과연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무교인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관계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moderating)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혼외성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자료가 부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개척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뿐 만 아니라,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효과가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기독교인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는 무교인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기독교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독교인들의 혼외성문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음란물은 인터넷 특성이 반영된 음란물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성적 충동과 행동을 야기하는 모든 표현물이다(김민, 2002 ; 최현경, 2012). 선행연구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증가할수록 성 허용성이 증가하고 ‘위험 성행동’(혼외정사, 매매춘, 다수와의 섹스, 성폭력 등)(Wright & Randal, 2012: 1414)을 할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밝혔다(지준, 2001 ; 김소향, 2003 ; 남미애·홍봉성, 2012).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혼외관계 수용성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성에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다(이희진, 2021a).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성인식 및 성행위에 인터넷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시간, 빈도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과 비교된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시간 및 빈도뿐만 아니라, 체험한 내용, 개인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이라는 “위험 성적물의 시청이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모방, 학습, 또는 동기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현규: 1998: 126). 인터넷 음란물의 주요 콘텐츠인 혼외정사를 포함한 각

중 ‘위험한 성행동들’(risky sexual behaviors)을 모방 학습하면서, 실제로 혼외성관계에 연루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사회학습이론’(Bandura, 1984)을 근거로 설정할 수 있다. ‘사회인지적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직접 강화, 보상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지적 역량 및 인지과정(예: 대리보상, 보상에 대한 기대, 의식,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 등)에 학습이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남미애·홍보성, 2012: 96 ; 이희진, 2021a).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본 내용에 직접 반응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반응한다. 이 과정에 개인의 과거 경험, 즉 기억이 개입”된다는 것이다(이현규, 1998: 128). 인터넷 음란물 내용, 이용(노출)시간 및 빈도 등에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혼외정사를 포함한 각종 위험 성행위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인터넷 음란물을 즐겨 이용하면서, 기혼 남녀가 효용성(utility)이나 편익(benefit)과 같은 경험을 할 경우, 혼외성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일 수 있고,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은 베르누이(Bernoulli, 1783)의 ‘효용이론’에서 이론적 근거(rationale)를 찾을 수 있다(Stearns, 2000). 전술한 논의점을 토대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이들의 혼외관계인식뿐만 아니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연구문제 2).

2.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에 대한 개인의 의식, 가치 및 태도가 개인의 성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공미혜, 2003; 이영화·이영숙, 2007 ; 김진희·김경신, 2008 ; 최현경, 2012 ; 함인희, 2012 ; 신성자, 2017). ‘혼외관계’의 통상적인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혼외관계를 육체적 성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몰입, 언어적, 비언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영화·이영숙, 2007 ; 신성자, 2017 ; Harley, 2011). 본 연구도 이러한 포괄적인 혼외관계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성에 대해서 수용적인(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성행위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인식’과 ‘행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성행위는 개인의 성인식을 반영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혼자들의 혼외성관계는 ‘성적 독점적 관계’(sexual exclusive relationship)라는 부부가 지켜야 할 성 윤리를 위반하는 성적 일탈 행위이다. 미혼자들 또는 싱글들의 통상적인 성행위와 달리, 혼외성행위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risk-taking)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혼외성에 대한 ‘인식’과 ‘행위’간에 간극이 더 클 것이다.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수용적인 기혼 남녀는 실제로 혼외성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지만,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연구문제 3, 연구문제).

3.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매개효과

앞서, ‘인터넷 음란물’(internet pornography)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이들의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제시하였다.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개인의 성행위에 반영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혼외성행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혼외관계인식을 혼외성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혼외성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선행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서,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그만큼 적을 것이라는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혼외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혼외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수용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기혼 남녀가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의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보았다(연구문제 3).

4. ‘기독교 유무’와 ‘성별 특성’이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 연구문제로 제시했던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혼 남녀의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가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서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taining effect)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절효과’를 실증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당위성은, 기독교인들이 지닌 무교인과는 구별되는 ‘정체성’(identity)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들)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membership)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

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Tajfel, 1978 ; 장미향·정한기, 2007: 79 재인용).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Tajfel & Turner, 1986 ; Ashforth & Mael, 1989 ; 이원준·이희진, 2017: 201). 사회 정체성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치 및 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다”(이희진·이원준, 2019: 196). ‘간음하지 말라’는 기독교의 제7계명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성서 및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혼외 성(sex)을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장형·안수강, 2014: 227 ; 권혁남, 2015: 224 재인용). 결혼 및 성(性)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기독교인들에게 내면화되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에서 사회화(socialization)된 기독교인들은 무교인들보다 혼외성과 같은 위험 성행동에 대한 욕구 및 충동에 대한 억제력이 더 클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무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는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연구문제 1). 부가하여 기혼자들의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에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직접 효과)과 혼외관계 인식이 미치는 매개효과도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에 의해서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는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연구문제 2, 3). 실증연구를 통해 ‘기독교 유무’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독교인과 무교인, 이 구별되는 두 집단의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성(性)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행위에서 남성과 여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성 역할 사회화’의 관점에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천주현, 1992 ; 변주혜, 2002 ; 이영화·이영숙, 2007 ; 함인희, 2012 ; 배정원, 2015 ; 신성자, 2017 ; 이원준, 2020, 이희진, 2021b ; Yucel, 2018). 그러므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기혼 남성 vs. 기혼 여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性)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할 때,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혼외성행위 실행 가능성도 더 높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을 것으로 추론된다(연구문제 5). 이에 부가하여, 기혼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밝히고, 전술한 직접 효과와 매개 효과가 성별 특성에 의해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연구문제 6).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인식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효과는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3.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효과는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4. 혼외관계인식이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효과는 어떠하며,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는 기독교 유무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5.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인식에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전술한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각각 미치는 직접효과,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혼외관계인식이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 등은 성별 특성(기혼남성 Vs. 기혼 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구축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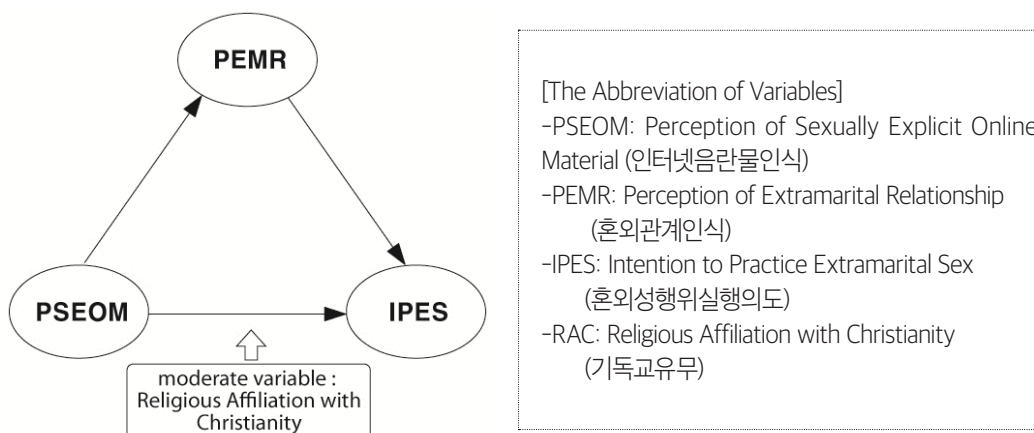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sample)은 443명이다. 온라인 서베이업체에 유료 패널에 등록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survey)를 실시하였다. 조사 응답자들은 전국 단위에서 선정되었으며, 모두 자발적으로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604명이었지만, 이들 중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134명)과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무교인들(309명)만을 선정하여 443명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타종교 등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151명)은 제외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443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성이 218명(49.2%), 여성이 225명(50.8%)이다. 평균 연령은 44.2세이며, 응답자의 절반이 40대(225명, 50.8%)이며, 30대가 128명(28.9%), 50대가 90명(20.3%)이다. 교육 배경을 보면, 중졸이 50명(11.3%), 고졸이 81명(18.3%)이고, 대학졸업자(289명, 63.2%)와 대학원 졸업자(32명, 7.2%)가 전체 응답자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종교 배경을 살펴보면,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134명(30.2%)이고 나머지 309명(60.8%)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신론자들이다. 설문 조사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약 2주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3.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1) 독립변수: 인터넷 음란물인식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과 판단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다. 선행연구(이희진,

2021a)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척도 문항 내용은 인터넷 음란물의 효용성(utility) 및 편익(benefit)에 대해 얼마만큼 부동의 혹은 동의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야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을 즐겨보는 편이다”, “야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야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것이 부부의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희진, 2021a).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Young(2002)이 개발한 ‘음란물 중독검사’(Cybersexual Addiction Index)에서 ‘수행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듯이, 본 척도 문항에 인터넷 음란물이 부부의 성생활에 미치는 긍정적(혹은 부정적) 효과를 알아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희진, 2021a).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682 이다.

(2) 혼외관계인식: 매개변수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것을 사용하였다(신성자, 2017 ; 이원준, 2020 ; 이희진, 2021a). 이 척도는 혼외관계를 육체적 성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톰슨(Thomson, 1984)이 소개했던 혼외관계의 세 유형(육체적 유형, 정서적 유형, 육체적-정서적 혼합형)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에게 각 유형별 혼외관계를 자신(응답자)도 가질 수 있는지를 묻고, 응답자가 어느 정도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를 파악하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육체적 유형의 예: “나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호감 및 매력을 느낄 경우,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5점 척도인데,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에 수용적인(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성자, 2017).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761 이다.

(3)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종속변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단일 문항으로 된 척도이다(신성자, 2017). 응답자들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실제로 혼외관계를 실행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얼마나 동의(부동의)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5점 척도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실제로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조절변수: 기독교 유무, 성별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의 직·간접 효과가 응답자들의 기독교 유무(기독교를 믿는 응답자 vs.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에 의해 어떻게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이항 변수(0=기독교

교, 1=무교)이다. ‘성별 특성’도 이항 변수(0=기혼 남성, 1=기혼 여성)이다.

(5) 주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인터넷 음란물인식 척도와 혼외관계인식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Averabe Variance Extracted), 합성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평균 분산추출(A.V.E)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간에 상관관계의 정도를 확인하는 수렴타당도 측정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합성신뢰도(C.R)는 척도의 신뢰도 측정 시 크론바하 알파값과 같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결과는 Table 1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A.V.E의 적정기준값인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C.R의 적정 기준값인 0.7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 두 척도의 평균 분산추출, 개념 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 Yi, 1988).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nstrument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PSEOM)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PEMR)
C. R (Construct Reliability)	.937	.894
A. V. E (Average Variance Extracted)	.836	.755

(6) 분석방법

연구 모형내 설정된 경로들의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직접 효과, 간접 효과, 조절효과 포함)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에 기초하여,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지수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합지수(RMSEA) 그리고 상대적합지수(CFI, TLI)를 근거로 확인하였다. ‘기독교 유무’(기독교=0, 무교=1)가 미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은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mediating effect)가 정규분포를 보이기는 어렵다. 정상성(normality)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Schumacker & Lomax, 2004 ; 홍세희, 2009), 표준 오차를 수정하여 편향(bias)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모형 내 주요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변수들의 정규분포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인 왜도(skewness)는 $-.428 \sim .395$ 범위로 절대값 2 미만이며, 도수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첨도(kurtosis)는 $-1.168 \sim -.143$ 범위로, 절대값 7 미만으로 각 변수들의 일변량 정규 분포성을 충족하였다(Curran et al. 1996:16-29). 세 주요 변수들(PSEOM, PEMR, IPES)은 모두 5점 척도인데, 인터넷 음란물인식(M=3.13)만 척도의 중간값(3점)을 겨우 넘었다. 이 척도 점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인 척도 점수(2점 이하)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이지만,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준(4점 이상)에는 미치지 않는 점수이다. 혼외관계인식의 척도점수(M=2.58)는 혼외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있는 수준(2점 이하)을 상회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과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혼외성관계 실행의도 척도점수(M=2.37)도 혼외성관계 실행의도가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2점 이하)을 약간 상회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N=443)

Variables	Indicators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E	Kurtosis	S.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PSEOM)	B21	2.42	1.139	.305	.116	-.917	.231
	B22	3.30	.973	-.428	.116	-.143	.231
	B23	3.13	.991	-.316	.116	-.306	.231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PEMR)	B6	2.70	1.172	.071	.116	-1.098	.231
	B7	2.58	1.244	.213	.116	-1.143	.231
	B8	2.58	1.271	.178	.116	-1.168	.231
Intention to Prctice Extramarital Sex(IPES)	B12	2.37	1.119	.395	.116	-.741	.231

2. 성별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관계 실행의도에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기혼 남성은 기혼 여성보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혼외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관계를 실행할 의도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특성에 의한 차이는 한층 더 두드러졌다.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Male/Female) (N=443)

	Variables		
	PSEOM	PEMR	IPES
Male Group(N=218) Means(SD)	3.2554(.7350)	2.8945(.9426)	2.62(1.080)
Female Group(N=225) Means(SD)	2.6504(.7697)	2.3585(1.0073)	2.13(1.105)
t-value	8.456	5.778	4.767

3. 기독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관계 실행의도 중에서 혼외관계인식에서만 기독교인과 무교인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무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비해서, 혼외관계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인(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혼외성관계를 실행할 의도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비해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혼외성관계를 갖는 것은 기혼자들의 성적 일탈행위이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억압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교인에 비해 기독교인의 인터넷 음란물인식 척도의 수학적인 점수 자체는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Table 4.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Atheistic)(N=443)

	Variables		
	PSEOM	PEMR	IPES
Christian Group(N=134)Means(SD)	2.8358(.9601)	2.4652(1.0309)	2.40(1.215)
Atheistic Group(N=309) Means(SD)	2.9968(.7847)	2.6904(.9965)	2.36(1.077)
t-value	-1.925	2.162	-.360

4. 확인적 요인 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세 개의 잠재변인(‘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이 각각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indicators)들의 반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Table 5.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443)

Variables	Indicators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SMC
PSEOM	B21	.744	1.345	.144	9.324	***	.553
	B22	.527	.814	.099	.258	***	.578
	B23	.636	1.000				.478
PEMR	B6	.403	1.000				.573
	B7	.900	2.370	.285	8.327	***	.809
	B8	.886	2.383	.285	8.349	***	.785

*** $p < .001$, ** $p < .01$, * $p < .05$

각 잠재변인들의 측정지표들의 계수와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적합도($\chi^2=78.473$, $df=12$, $p=.000$, $TLI=.927$, $CFI=.937$, $RMSEA=.068$)도 적정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5. 모형분석

전체 표본대상(443명)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앞서 제시했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chi^2=78.473$, $df=12$, $p=.000$, $TLI=.927$, $CFI=.937$, $RMSEA=.068$)와 동일하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3개의 직접 경로들, 즉,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33***),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588***), ‘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454***)는 모두 유의하였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혼 남녀들은 혼외관계에 대해 수용적이며,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인 인식을 가진 기혼 남녀들이 실제로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고, 실제로 혼외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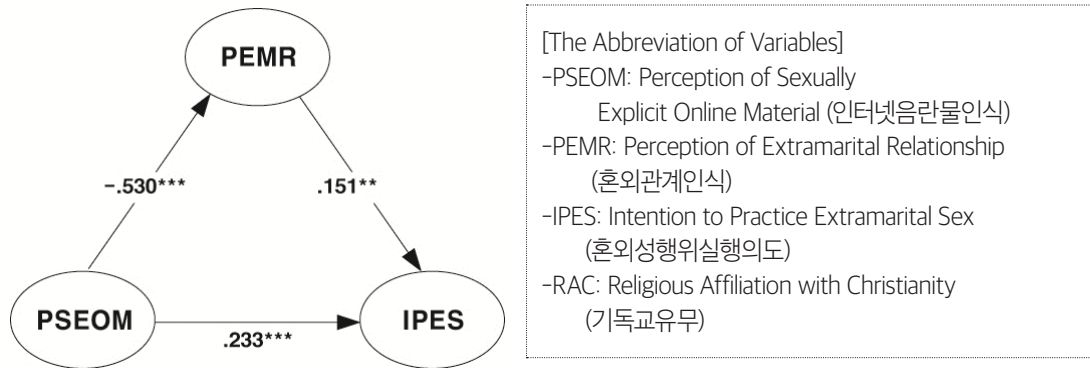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혼외관계인식을 매개(mediator)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 혼외관계인식의 부분 매개효과(.266***; .186~.372)가 검증되었다(Table 5). 전술한 분석결과는 응답자의 성별 및 종교 배경(기독교인, 무교인)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이 필요하다.

Table 6.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N=443)

Parameter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 (P-valu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PSEOM(인터넷음란물인식) → IPES(혼외성행위실행의도)	.233***	.445***	.124
SEOM(인터넷음란물인식) → PEMR(혼외관계인식)	.588***	.484***	.078
PEMR(혼외관계인식) → IPES(혼외성행위실행의도)	.454***	1.054***	.177
In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p
PSEOM → (PEMR) → IPES	.266	.510	.001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SEOM → (PEMR) → IPES		.186	.372

$\chi^2=78.473$, $df=12$, $p=.000$, $TLI=.927$, $CFI=.937$, $RMSEA=.068$

*** $p < .001$, ** $p < .01$, * $p < .05$

6.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기독교 유무’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chi^2=95.617$, $df=24$, $p=.000$, $TLI=.901$, $CFI=.932$, $RMSEA=.065$)과 측정모형($\chi^2=97.354$, $df=28$, $p=.000$, $TLI=.902$, $CFI=.935$, $RMSEA=.059$)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 차이(Δdf)가 4일 때 카이제곱차이 값($\Delta \chi^2$)이 1.74로, 임계치인 9.49 미만이며, 모형 적합도 또한 기저모형과 측정모형 간의 차이가 미미하여,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3, Table 7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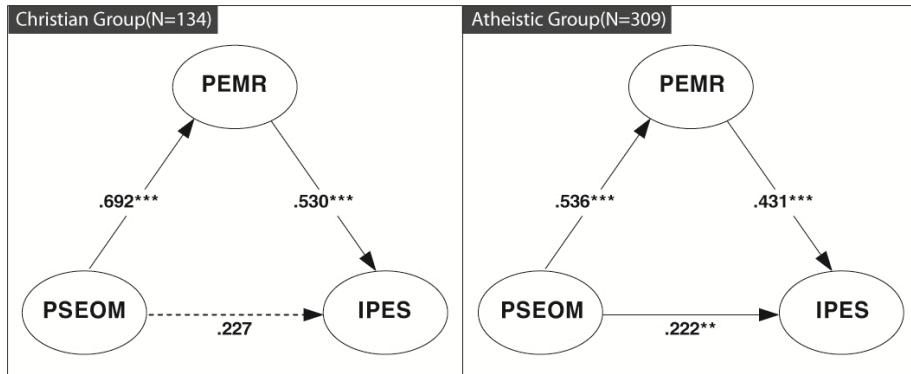


Figure 3.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어떤 종교도 가지지 있지 않다고 응답한 무교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222**),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536***),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431***), 이 세 경로의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231***;154~.349)경로에서의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혼외관계인식의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가 검증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외관계인식’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경우,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227)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하게 된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692***),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530***), 이 두 경로에서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367**;178~.631)경로에서의 혼외관계인식의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관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의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검증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혼외관계인식'이 인터넷 음란물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 매개요인(mediator)으로 작용할 경우, 인터넷 음란물인식은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의 '혼외관계인식'은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임(crucial factor)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 형태에서도 무교인('부분 매개효과')과 기독교인('완전 매개효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모두에서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무교, 536***; 기독교인, .692**)과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무교, 431***; 기독교인, .530**)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능가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기독교인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무교인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였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 The Result of Moderating Effect by Religion Backgoud (N=443)

Christian Group (N=134)				Atheistic Group (N=309)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PSEOM→IPES	.227	.442	.233	PSEOM→IPES	.222**	.441**	.150
PSEOM→PEMR	.692***	.531***	.102	SEOM→PEMR	.536***	.465***	.087
PEMR→IPES	.530***	1.349***	.324	PEMR→IPES	.431***	.988***	.188
Indirect Path				Indirect Path			
PSEOM→(PEMR)→IPES	.367	.716		PSEOM→(PEMR)→IPES	.231	.460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PSEOM→(PEMR)→IPES	.178	.631	.002	PSEOM→(PEMR)→IPES	.154	.349	.001

$\chi^2 = 97.354, df=28, p=.000, TLI=.902, CFI=.935, RMSEA=.059$

*** $p < .001$, ** $p < .01$, * $p < .05$

7. 성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chi^2=85.547$, $df=24$, $p=.000$, $TLI=.902$, $CFI=.934$, $RMSEA=.059$)과 측정모형($\chi^2=92.402$, $df=28$, $p=.000$, $TLI=.905$, $CFI=.930$, $RMSEA=.050$)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 차이(Δdf)가 4일 때 카이사승차이 값($\Delta \chi^2$)이 16.85로, 임계치인 9.49 미만이며,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의 적합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은 차이가 미미하여,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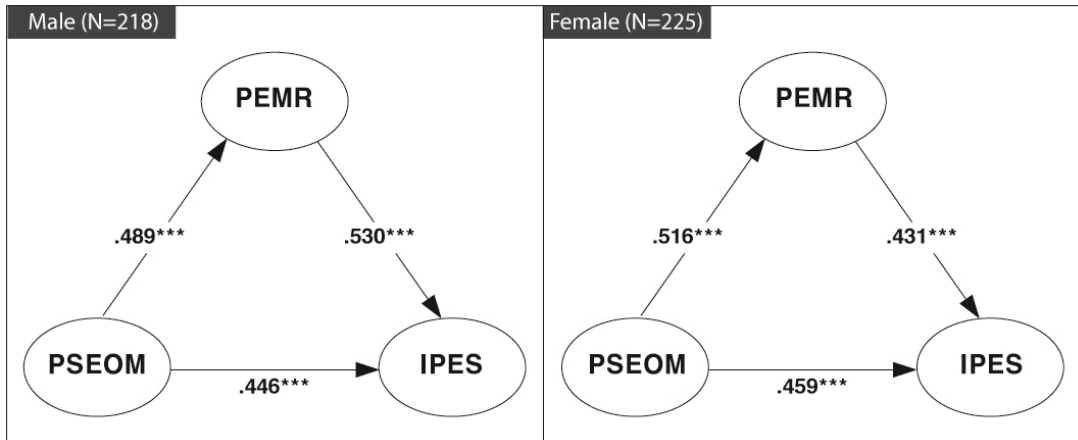


Figure 4.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4, Table 8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직·간접 경로들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남성 집단의 경우,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24***),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489***), ‘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445***)등 세 경로에서의 각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18***;136~.339) 경로에서의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여성 집단의 경우도, 남성 집단과 같이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14***),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516***), ‘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459***),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37***;148~.369)등 모든 직·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한층 더 증폭시키는 혼외관계의 매개효과는 기혼 남성이나 기혼 여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모두에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Table 3). 그러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는 기혼 남성 집단과 기혼 여성 집단 모두 유의하였고,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의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기혼 남성 집단과 기혼 여성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여, 성별 특성의 조절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간접 경로들의 직접효과(3개)와 매개효과(1개)는 남성이나 기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하여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등에서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Table 3 참조),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 혹은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력,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이 매개요인(mediator)으로 작용하여 미치는 영향력(효과)은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이 비슷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Table 8. Result of Moderating Effect by Gender(N=443)

Male Group (N=218)				Female Group (N=225)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PSEOM→IPES	.224***	.434***	.125	PSEOM→IPES	.214***	.434***	.125
PSEOM→PEMR	.489***	.445***	.095	SEOM→PEMR	.516***	.503***	.108
PEMR→IPES	.446***	.952***	.149	PEMR→IPES	.459***	.952***	.149
Indirect Path				Indirect Path			
PSEOM→(PEMR)→IPES	.218	.423		PSEOM→(PEMR)→IPES	.237	.479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PSEOM→(PEMR)→IPES	.136	.339	.001	PSEOM→(PEMR)→IPES	.148	.369	.002

$\chi^2 = 97.354$, $df = 28$, $p = .000$, $TLI = .902$, $CFI = .935$, $RMSEA = .059$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443명의 기혼자들(남성 217명, 여성 225명; 기독교인 134명, 무교인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자료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M=3.13)과 혼외관계(M=2.57)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부족하며, 혼외성행위 실행의도(M=2.37)도 낮지 않았다(IV.1 참조). 남성은 여성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혼외관계에 수용적이며,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도 더 높아 성별 특성에 의한 차이가 밝혀졌다(연구문제 5). 기독교인과 무교인은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혼외관계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독교인에 비해 무교인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훨씬 더 수용적임이 밝혀졌다(연구문제 1).

둘째, 성별 특성(남성, 여성)과 종교 배경(기독교, 무교)과 무관하게, 인터넷 음란물에 덜 비판적인 사람이, 혼외관계를 더 수용하고(연구문제 2, 6), 혼외관계에 수용적일 수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도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였다(연구문제 3, 6).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매우 강하였다(표 7, 8 참조).

셋째,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모두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할수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증가하였다(연구문제 6). 이러한 현상은 무교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성행위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2).

넷째,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 관계에, 혼외관계인식은 무교인 집단에서는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각각 검증되었다(연구문제 4).

이상 전술한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시사점과 함의를 모색하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혼 남성은 기혼 여성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혼외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이며,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도 더 높았다. 혼외관계와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뿐만 아니라, 혼외정사(extramarital affair)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 성행동들(예: 다수의 성파트너와의 성행위, 매매춘, 성폭력 등)(Wright & Randal, 2012)을 주요 콘텐츠로 사용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도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증명된 것이다. 연구결과는 성(性)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행위에서 성별 특성의 차이를 주장한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천주현, 1992 ; 변주혜, 2002 ; 이

영화·이영숙, 2007 ; 함인희, 2012 ; 배정원, 2015 ; 신성자, 2017 ; 이원준, 2020 ; 이희진, 2021b ; Yucel, 2018)과 부합한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드러난 성별 특성에 의한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 인터넷 음란물인식에서의 차이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사회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혼외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양성평등적인 성 인식을 갖기 위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가 필요하다. 혼외성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도와주는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실천가들(practitioners)들의 개입(intervention)에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중심의 개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혼외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기혼 여성에 비해 낮은 기혼 남성들만을 ‘표적 대상 집단’(target group)으로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입 대상을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실천가(심리치료사, 상담가,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역할극, 소집단 토론 등)을 제공하면서, 성별 간의 인식의 차이(discrepancy)를 줄이고, 양성 평등적 성 규범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원조(helping)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교인은 기독교인에 비해 혼외관계에 대해 훨씬 더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은 무교인보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은 기혼 남성(.445), 기혼 여성(.459), 무교인(.431), 기독교인(.530)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는 혼외관계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은 개인의 성행위는 성인식을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과 부합한다(이영화·이영숙, 2007 ; 이영숙·이영화, 2008 ; 함인희, 2012 ; Treas & Giesen, 2000).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가 혼외관계인식에 영향을 받는 현상은 무교인보다 기독교인에게서 더 뚜렷하다. 무교인의 경우와 다르게 기독교인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는 이들의 인터넷 음란물인식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무교인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하여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 이것이 혼외관계의 실행을 촉발시키는 부정적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종교적 가르침과 신념이 혼외관계라는 십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제어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사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혼외관계 실행의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혼외관계 실행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밝혀졌다.

셋째, 전술한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discrepancy)를

반영한 실천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켜 혼외성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무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실천목표(practice goal)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개입할 경우,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혼외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이 기독교인에 비해서 낮은 무교인을 대상으로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외관계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교인 보다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혼외관계인식에 대해서 남녀 간에 성별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별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개별 교회 단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지닌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구) 단위로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기관들(가족 상담소, 정신건강센터, 가족복지관 등등)에 의뢰(referrals)하거나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기혼자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혼외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독교적 관점과 심리적 전문성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본인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닌 주변에 혼외성행위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교인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문제의식이 적을수록,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기독교인의 경우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다고 해서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히 무교인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음란물을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거 비디오테이프나 CD와 같은 형태로 유통되던 음란물들은 불법유통을 근절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어느 정도 절제가 되었지만,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가로질러 유통되는 음란물들은 주로 서버가 해외에 있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여서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기 힘들다. 더구나 개별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전에 비하여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접하고 소비하기 너무나 쉬워진 상황이다.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록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더 낮아지기 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을 근절하는 방식이 아닌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란물을 종교적으로 죄악시하는 윤리적 기준을 가진 비율이 높은 기독교인에 비하여 무교인의 경우 성인이고 기혼자이기에 인터넷 음란물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낮은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청소년이나 미혼인 사람들과 스스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어느 정도의 음란물시청은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음란물이 담고 있는 콘텐츠들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강간, 집단성관계, 혼외관계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콘텐츠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성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포르노산업은 실제로 매우 착취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소비하는 음란물이 사실 누군가를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착취하는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 또한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통계나 사례들로 구성하여 기혼자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들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같이 정기적인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집단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들(가족 상담소, 정신건강센터, 가족복지관 등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인의 경우도,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을 매개(mediator)로,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독교인이 혼외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수록 결과적으로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 또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전술한 무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에게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비판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개입이 혼외성행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음란물을 성경에서 금한 죄악이라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이 절대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독교인인 자신은 그러한 음란물과 거리를 두더라도 사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비기독교인들의 음란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독교가 가진 높은 윤리적 가치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는 교회일 것이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집단이기에 교회 차원에서 중장년부 신도들에게 관련된 교육들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교회라는 공간에서는 성(性)에 관련된 주제를 가능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성을 터부시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준이기에 따로 언급하거나 다루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함께 듣는 설교에서 언급을 하기에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어려운 부분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한 교육과 뒷받침을 할 필요 또한 요구된다. 더구나 일반 무교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종교적 가르침의 가장 큰 윤리판단의 준거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며 기독교적 관점이 함께 녹아들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교회 차원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재정과 인력의 여력이 있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작은 교회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교회들의 경우, 신도들 중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조언해줄 수 있는 인력의 풀이 더 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CGNTV가 2021년 2월에 런칭한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OTT 풍당(fondant) 또한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기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TT의 특성상 계정주가 성인인지 아닌지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관점에서의 건전한 성교육프로그램을 OTT 풍당을 통하여 릴리즈 하는 것도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 기혼자를 위한 성교육과 음란한 콘텐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다면 어떻게 보면 다수의 대중들끼리 듣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겸연쩍은 내용들도 개개인이 편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독교 유튜버들은 대중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성에 관련된 부분은 유독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 중장년층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영상 시청에 할애한다. 충분히 기혼자의 연령대의 사람들도 유튜브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튜브의 특성상 무교인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교회라는 공간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힘든 공간이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들과 뜻있는 교역자들이나 교회가 함께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일반 대중들도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상 본인이 꼭 해당 기독교 유튜버를 선호해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좋은 반응이 있는 영상들이 알고리즘 추천에 의하여 보여지게 된다. 그렇기에 일반 대중이라도 충분히 흥미로울만한 주제라면 기독교 유튜버들의 영상을 접할 수가 있다. 더구나 기혼자들의 성(性)에 관련된 수준 있는 콘텐츠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혼자들의 성(性) 의식과 음란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서 대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든다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교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성인인 기혼자 본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 의식을 가지게 교육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또한 포함되기에 기혼자인 대중들의 참여 및 시청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혼외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대한 차이를 탐색한 개척연구로서의 작은 의미를 가지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교회 주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다. ‘교회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연구 과제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 및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 어떻게 조절(moderating)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타종교인들과 기독교인과의 차이에 대한 탐색은 간과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조절효과와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절효과를 각각 밝혔지만, 혼외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및 ‘신앙 수준’ 등이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신앙 수준’과 ‘연령’ 등을 포함한 다차원의 조절효과 분석을 할 수 있고, 기독교인과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더 큰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기혼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 및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가 다양한 요인들(성별, 연령, 기독교 유무, 신앙수준 등)에 의해서 어떻게 상이한 양상을 가지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공미혜 (2002).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20.
[Kong, M. H. (2002). Sexu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arri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20.]
- 권혁남 (2015).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인문사회** 21, 6(3), 223-239.
[Kwon, H. N. (2015). Abolition of Adultery Law and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6(3), 223-229]
- 김민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섹스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인터넷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복지적 접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79-114.
- [Kim, M. (2002). A Study on the Reality of Internet Addiction and Cyber-Sexual Addiction among Adolesc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Spring Conference*, 79-114.]
- 김성수·장성수 (2010). 종교정향 및 신앙성숙과 심리적 안녕감, 비행,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기독교 신앙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2(2), 22-49
- [Kim, S. S. & Jang, S. S. (2010). The Relationship of the Religious Orientations, the Maturity Fai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linquency, Pro-Social Behaviors- Based in High School Christian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and Learning Consultation*, 2(2), 22-49.]
- 김소향 (2003). **남자고등학생의 사이버음란물접촉과 성폭력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Kim, S. H. (2003). *Consciousness of Sexual Violence Related to Cyber Pornography Exposure of High School Male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김유정 (2010).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4(6), 45-84.
- [Kim, Y. J. (2010).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fter Exposing Internet Explicit Materials Associated with Personal Factor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6). 45-84.]
- 김인수 (2014). **성인 사이버 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Kim, I. S. (2014). *Factors Influencing Adult Cyber Sex Addiction*.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김진희·김경신 (2008).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123-138.

- [Kim J. H. & Kim, K. S. (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123-138.]
- 남미애·홍봉성 (2012).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과 일탈적 성행동과의 관계: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연구**, 19(9), 93-124
- [Nam, M. A. & Hong, B.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Deviant Sexual Activities : Focusing on Mediated Effects of Perceptual Fac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93-124.]
- 박찬걸 (2010).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5(2), 41-69.
- [Park, C. G. (2010).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to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Kyung Hee Law Journal*, 45(2), 41-69.]
- 배정원 (2015). **성인남녀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중독 및 성기능과의 연관성**.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Bae, J. W. (2015) *Correlation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with sexual addiction and sexual functions in adult men an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of Department of Health, Gimhae, Korea.]
- 변주혜 (2002). **부부의 성연구 : 외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Byun, J. H. (2002) *A study on the sex of couples: focusing on affair*, Master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신성자 (2017). 성역할고정관념과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199-211.
- [Shin, S. J. (2017).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on Individuals'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3), 199-211.]
- 이동호 (2008). 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가톨릭 신학과 사상**, 62, 302-327.
- [Lee, D. H. (2008). Abolition of Adultery Law and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2, 302-327.]
- 이영숙·이영화 (2008).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631-638.
- [Yi, Y. S. & Lee, Y. H. (2008). A Study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an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4), 631-638.]
- 이영화·이영숙 (2007).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23-533.

- [Lee, Y. H. & Yi, Y. S. (2007). A Study on the Extramarital involvement of Married Men and the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523-533.]
- 이원준 (2020).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부부의 인식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682-694.
- [Lee, W. J. (2020).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Married Couples about Individual's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6), 682-694]
- 이원준·이희진 (2017). 사회복지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91-227.
- [Lee, W. J. & Lee, H.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tudents'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2(3), 191-227.]
- 이장형·안수강 (2014). 그리스도 윤리표준에 나타난 인간 본분과 실천윤리. **신학과 실천**, 41, 263-288.
- [Lee, J. H. & Ahn, S. K. (2014).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of The Ethics of Jesu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ology and Praxis*, 41, 263-288.]
- 이현규 (1998). 영상매체 시청이 청소년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도신학**, 1, 123-165.
- [Lee, H. G. (1998). Effects of video media viewing on adolescent sexual behavior. *Apostolic Theology*, 1, 123-165.]
- 이희진·이원준 (2019).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2), 189-217.
- [Lee, W. J. & Lee, H. J. (201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of the Violence in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Christian Film Crews and Atheistic Film Crews -On the Basis of Binary Logistics Analysis-. *Faith & Scholarship*, 24(2), 189-217.]
- 이희진 (2021a). 정서적 소외감과 정서적 성숙이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넷음란물인식의 매개효과검증: 성별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6, 171-206.
- [Lee, H. J. (2021a). The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between Married Men and Women's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Their Emotional Isolation and Emotional Maturit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6,

171-206.]

- 이희진 (2021b). 기혼남녀의 정서적 성숙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성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성별 및 혼외관계 만연성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31(1), 41-87.
- [Lee, H. J. (2021b). The mediation effect of married people's sexual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turity and perceptions of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s of Women's Studies*, 31(1), 41-87.]
- 장미향·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Jang, M. H. & Seong, H. G.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Soci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1), 77-87.]
- 조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0), 291-314.
- [Cho, E. S. (2013). Associations between the Internet Pornography Preference and Adolescents' Risk Sexual Behavior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291-314.]
- 조주영·김영희 (2004). 영상매체 성매세지와 청소년의 성반응: 성태도와 성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2(3), 159-178.
- [Cho, J. Y. & Kim, Y. H. (2004). Sexual Messages in the Media and Sexual Reactions of Adolescent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3), 159-178.]
- 지준 (2001). **컴퓨터 음란물 접촉경험과 청소년의 성태도, 성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Ji, J. (2001). *adolescences experience of computer obscenities and sex-attitude and sex-behavior*.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천주현 (1992).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Cheon, J. H. (1992). *A Study on the Permissible Behavior of Out-of-wedlock Relationship by Gender*.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최현경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Choi, H. K. (2012). *The Effect of Teenagers' Contacts with Internet Obscene Materials on Their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and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onsciousness of adultery*.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함인희 (2012). 한국가족 내 부부간 성관계에 투영된 젠더 격차(Gender Gap). *여성학논집*, 29, 175-210.
- [Hahm, I. H. (2012). The Gender Gap Reflected in the Sexual Relations of the Korean Family. *Women's Studies Review*, 29, 175-210.]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S&M 리서치그룹.
- [Hong, S. H.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mediate*. S&M Research Group.]
- Ashforth, B. E.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Chapin, J. R. (2000). Adolescent sex and mass media: A developmental approach. *Adolescence*, 35, 799-811.
- Finnis, J. (2011). *Sex and marriage: some myths and reasons*. Collected essays of John Finnis. Vol. III: Human rights and common good, 353-38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 Gagnon, J. H. (1990). The explicit and implicit use of the scripting perspective in sex research.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1), 1-43.
- Harley, W. F. (2011).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Revell.
- Harris, C. R. & Christenfeld, N. (1996). Gender, jealousy, and reason. *Psychological Science*, 7(6), 364-366.
- Harris, C. R. & Christenfeld, N. (1996). Jealousy and ra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across gender and cultur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7(6), 378-379.
- L'Engle, K. L., Brown, J. D. & Kenneavy, K. (2006). The mass media are an important context for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3), 186-192.
- L'Engle, K. L. & Jackson, C. (2008). Socialization influences on early adolescents' cognitive susceptibility and transition to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2), 353-378.
- Longmore, M. A. (1998).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study of sexuality. *Journal of Sex*

- Research*, 35(1), 44-57.
- Luster, T. & Small, S. A.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622-632.
- Schumacker, R. E. & Lomax, R. G.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arns, S. C. (2000). Daniel Bernoulli (1738): evolution and economics under risk. *Journal of biosciences*, 25(3), 221-22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Austin W. G. and Worchel S.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Tai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i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hompson, A. P. (1984).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35-42.
- Treas, J. & Giesen, D. (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48-60.
- Walsh, B. J. & Middleton, J. R.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MI: Baker.
- Wright, P. J. & Randal, A. K. (2012).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ult males in the United Sta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4), 1410-1416.
- Wolters, A. M. (1992).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 Young, K. S. (2002).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 Yucel, D. (2018).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behaviours and attitudes among married individuals.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7(2), 317-334.
- Zillmann, D. & Bryant, J. (1988). Effects of prolonged consumption of pornography on family values. *Journal of Family Issues*, 9(4), 518-544.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of
Christians and Atheists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이희진 (한동대학교)

이원준 (창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기혼 남녀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가 기혼 남녀의 종교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여성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혼외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이며,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인은 혼외관계에 대해 무교인보다 더 비판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독교인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혼외관계에 대해 이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교인은 물론 기독교인을 위해서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비판의식 고취가 혼외성행위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중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인터넷 음란물인식, 기독교인, 무교인